

네이버 “실제 쓰임새 있는 AI 개발”… NC “산업별 맞춤형 AI 공급”

‘국가대표 AI’ 1차 평가, 그 후

Ⓣ ‘탈락’ 네이버·NC AI 전략

NAVER Cloud

한은과 금융·경제 특화 AI서비스 등 현장 적용력·보안 강화에 역량 집중 AI인력 충원 이어 투자 확대 계획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과모) 1차 평가에서 탈락한 네이버와 NC AI가 재공모 불참을 선언했다. 두 기업은 전략 변경이 아닌 기존 방향의 재확인이라고 한다. 네이버는 소버린 AI를 공공·금융 현장으로 확산하며 정면 돌파를, NC AI는 처음 목표했던 산업 특화 AI에 집중한다. 독과모 탈락이 아니라, 애초 전략의 일부였을 뿐이란 얘기다.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 AI 기술총괄은 최근 “이미 추진해온 AI 사업의 연장선에서 독과모에 참여했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방향대로 AI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미 30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AI 브리핑과 검색 서비스에 자체 AI를 적용했고, 탈락 이전부터 서비스 현장에서 AI 기술력을 구현해왔다는 것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오히려 AI 투자 확대를 선언했다.

네이버는 다음달 1일자로 김광현 검색 플랫폼 부문장을 최고 데이터·콘텐츠 책임자(CDO)로 선임하는 등 C레벨 리더 3명을 추가했다. 팀네이버 전반에 AI 에이전트 적용

NC AI

韓 제조·유통·콘텐츠 등 경쟁력 높아져 중소기업기술혁신협과 AI 업무협약 등 산업별 맞춤형 AI모델 개발로 시장 선도를

을 가속화하고 역량을 통합하겠다는 의지다. 네이버 관계자는 “독과모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더 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페이·금융·클라우드·쇼핑 등 사업 역량을 통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재정비와 투자 확대도 맞바뀌는 모습이다.

네이버가 독과모 탈락 후 빼든 카드는 데이터 주권과 보안 인프라 중심이었다. 정부가 모델의 독자성을 따졌다면, 네이버는 현장 적용력과 보안에 방점을 찍었다.

네이버는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경제 특화 AI 서비스 보기를 공개했다. 전 세계 중앙은행 최초로 자체 AI 플랫폼을 적용한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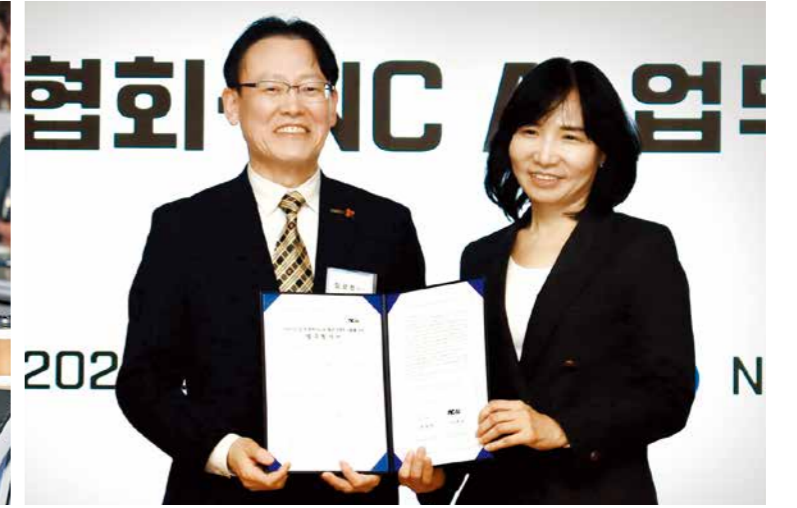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한국은행 데이터를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으로 규정, 기술 속도뿐 아니라 신뢰와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망과 완전히 차단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작동하는 보기는 데이터 유출을 원천 차단한다.

네이버는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금융 기관으로 공공 AI 전환을 확산한다는 계획으로, 헬스보다 실제 쓰임새로 소버린 AI를 입증하겠다는 전략이다.



왼쪽부터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2026 한국은행-네이버 공동 AX 콘퍼런스와 같은 날 성남 판교 NC AI 본사에서 열린 NC AI-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AI 활용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 모습.



NC AI가 독과모를 통해 얻은 것은 산업 특화 AI 전략 타당성이었다.

NC AI 관계자는 “원래 저희가 산업 특화 AI였고 피지컬 AI나 산업 특화 AI 쪽이 타겟이었다”면서 “독과모 하면서도 그런 시장을 확인했고 저희가 갖고 있는 멀티모달 기술로 국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산업군이 있다”고 자신했다.

NC AI가 말하는 산업 특화는 제조·국방·유통·K콘텐츠 등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분야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독과모 참여 당시

“한국 산업군을 글로벌 톱으로 만드는 것이 주권 AI”라고 정의한 바 있다. 산업 주권 확보가 NC AI의 길이란 얘기다.

NC AI는 최근 사단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와 중소기업 AI 활용 협약을 체결했다. 2만3000여개 이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맞춤형 AI 모델을 공급한다. 도메인 유입 방식으로 산업별 전문 지식과 현장 데이터를 AI 모델에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포스코DX, 현대오트모터 등 주요 제조·SI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NC AI는 국내 유일의 3D 생성 모델을 보

유해 피지컬 AI 분야에 강점을 갖겠다고 자신한다.

업계 관계자는 “범용 모델이 기술적 파급력과 확장성을 중시한다면, 산업 특화 AI는 현장 적용성과 비용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며 “특히 중소기업 AI 전환 시장에서는 모델 성능보다 도입 비용, 운영 안정성, 현장 적용성이 핵심”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두 기업 모두 각자 강점을 명확히 했지만, 글로벌 AI 경쟁에서 기술력과 비즈니스 성과를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나유진 기자 yujin@viva100.com

‘5월9일 계약까지’ 퇴로 열었지만 다주택자, 매도 대신 증여 가능성

李대통령, 양도세 중과 부활 예고

‘계약일 기준’으로 완화책 내놨지만 토허제 등 규제에 단기간 매매 어려워

부동산업계 “증여로 선회 가능성 커” 매물 잠김 심화 등 시장 악영향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25일 “재연장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고 못 박았다. 동시에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중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혀, 다주택자들에게 제한적인 퇴로만 열어줬다.

대통령이 ‘계약일 기준’이라는 완화책과 ‘원칙적 과세’라는 강경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자, 다주택자들은 매도와 증여, 보유 사이에서 다시 선택을 쥘 수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잔금 청산까지 통상 3~4개월이 걸리는 거래 구조상 “지금 당장 집을 내놔도 5월 9일 데드라인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양도 기준을 사실상 ‘계약일’로 완화해, 남은 100여 일 동안 매수자만 찾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구를 넓혀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기한 이후다. 5월 10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정부는 세금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장에서는 정책간 엇박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현재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주택 매수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매수

자체가 크게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매물 상당수는 이미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이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거나 갱신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할 수 없어 관할 구청의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양도세 중과로 매도는 압박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매수는 막아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퇴로가 좁아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3353건으로, 전월 대비 약 24% 증가했다.

서울은 아직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대통령의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이 공식화된 이후 증여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동업을 해도 수익을 반씩 나누는데, 세금으로 70% 이상을 내야 한다면 매도보다는 증여나 보유를 택하는 경우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가 단기적으로는 급매물을 늘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특히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점이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를 옥죄어 매물을 줄이면 민간 임대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며 “가족 단위 수요를 공공 임대나 기업형 임대로 대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거래를 막는 방식보다는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인만 소장은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조정되되, 취득세와 양도세 같은 거래세는 낮춰 매물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호 기자 okcomputer@viva100.com

자연 한가득

자연의 깨끗함 그대로
한전원자력연료의 그린 에너지를 담았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의 그린에너지는 자연을 생각합니다.

맑고 깨끗한 내일의 지구를 위해
한전원자력연료의 녹색기술로 안전하고 청정한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를 선물합니다.

한전원자력연료